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및 접근*

The Consideration and Approach of Christian Counseling regarding Death and Mourning

김수지 (Sooji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death and mourning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and to propose a Christian counseling approach. Death, one of the central themes of human existence, has been addressed in various ways throughout history, and psychology has also made continuous efforts to address the issues of death and mourning. However,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 alone has limitations in considering the holistic dimensions of human beings, necessitating the addressing of the issues of death and mourning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death is understood as both the consequence of sin and as the process toward eternal lif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correctly that death is the result of Adam's disobedience and the process of attaining eternal life through Christ.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mourning is not a process experienced solely by individuals; rather, Christians undergo the mourning process through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and connection with the faith community. For Christians, mourning alongside God and the faith community brings about true healing and growth.

To address the issues of death and mourning from a Christian counseling perspective, Christian counselors must accurately understand the issue of death, and based on this understanding, serve as a secure base for clients who need to mourn. Additionally, Christian counselors should exert efforts towards the restoration of clients daily lives, and the recovery of lost relationships, actively utilizing the faith community and resources

* 2024년 8월 2일 접수, 8월 23일 최종수정, 8월 26일 게재확정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과 박사과정,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ksjjj93@naver.com

김수지

throughout the process. Furthermore, death education and programs based on Christian counseling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requiring sustained attention to this effort.

Key words: death, mourning, Christian counseling

I. 들어가는 말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이 종결되는 시점인 죽음의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 필연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한국에서는 약 35만 명의 사람이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통계청, 2024). 이 수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죽음과 가까워지거나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 사회는 지진, 홍수 등의 자연적인 사고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이 일회적인 사고로 인한 다양한 참사들을 겪고 있다(문형준, 2015: 42-47). 159명이 사망했던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난들은 사회 전체에 심리적 충격을 초래하였고, 큰 슬픔과 상실감을 가져왔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팬데믹으로 선언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도 감염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과 상실을 불러왔으며, 이외에도 대형 화재, 교통사고 등의 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류삼준(2021: 340)은 생명이 섭리에 따라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나 그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를 '생명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가 겪어왔던 다양한 재난은 많은 사람의 죽음을 불러왔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죽음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죽음에 대해 모든 인간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는 존재이기에 죽음에 대해 고찰하게 되며, 자기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죽음을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타인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인지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죽음에 대한 철학과 태도, 정서 등은 인간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강선보, 2003: 1), 때로는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을 변화시켜 삶을 재정립시키기도 한다. 인간의 본질적인 주제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한 관점은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죽음에 대한 관점과 사고의 변화는 죽음과 관련된 경험뿐 아니라 개인의 생애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죽음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지향하는 철학이나 종교 등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지만, 죽음이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

죽음이 인간의 삶에 본질적 요소이자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양한 철학과 종교는 죽음에 대한 해석을 제시

하고 죽음과 관련된 실질적인 요소를 다루었다. 심리학의 발전 과정에서도 죽음과 관련된 분야인 ‘죽음학(thanatology)’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죽음은 심리학이 다루어야 할 주요 학문 주제로 인정받았다. 죽음학은 심리학 내에서도 다룰 내용이 풍부한 학문 분야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도 관련이 깊다. 현재까지 죽음학은 철학과 종교, 교육학과 사회학 등과 연계되어 연구되고 있으며(전병술, 2015: 60),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철학과 종교뿐만 아니라 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인간의 죽음을 연구하는 이유는 죽음을 다루는 것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인 웰빙(well-being)을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지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웰다잉(well-dying)을 다루어야 한다(김수지, 2023: 44). 죽음에 대한 사고와 인식, 태도는 일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죽음을 논의하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인 죽음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김난예, 2004: 2). 즉, 필연적으로 삶과 연결된 죽음에 대해 건강한 인식과 태도를 지니고,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죽음을 잘 다루는 것은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간은 자기 죽음뿐 아니라 타인의 죽음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인간은 삶 속에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마주하게 된다.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의미 있는 타인의 죽음이나 가까운 관계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 경험은 때로 삶에 큰 위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실제 다양한 상실의 형태 중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외상 경험으로 인식되는 사건은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인해 물리적 및 정서적으로 단절되는 것이었다(이동훈 외, 2017: 234-235). 타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박민지, 2021: 5-6), 이러한 상실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며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타인의 죽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자신과 타인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주고, 죽음에 대한 해석은 죽음을 다루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 죽음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그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인간의 삶과 세계를 받아들이는 가치관과 연결된다(전병식, 2022: 143). 따라서 죽음에 대한 관점은 삶의 문제 중 하나인 죽음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죽음관은 죽음과 관련된 실질적인 차원인 장례에도 영향을 미치며, 죽음관과 장례문화는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전병식, 2022: 143).

죽음에 대한 관점은 다양한 장례 절차와 문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와 함께 개인이 타인의 죽음으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반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은 모두 애도

(mourning) 과정을 거치게 되며, 건강한 애도 여부는 상실 경험 후 일상으로의 복귀와 함께 이어지는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타인의 죽음으로 인해 겪는 상실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크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의 죽음에 따른 정서적 반응과 변화 역시 죽음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김애순, 2004). 개인이 지닌 죽음에 대한 관점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타인의 죽음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타인의 죽음에 대처하는 과정이자 심리적 변화 과정인 애도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죽음은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이기에 인간은 죽음으로 인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개인이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죽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인 애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죽음은 사회 문제 중 하나이며, 고령화를 포함한 다양한 변화는 현대에 이르러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도 무수한 공동체와 개인은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교회와 기독교 상담 현장에도 죽음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과 내담자가 존재한다. 교회도 사회에 속해 있기에 교회 내에서도 죽음에 대한 적절한 개입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상담을 통해 죽음과 관련된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 일반 상담의 기초가 되는 심리학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죽음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 기독교인인 경우,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한 기독교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 죽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죽음과 애도를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접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죽음과 애도를 다룬 후,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과 애도를 탐구할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과 애도를 다룬 이후에는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죽음과 애도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과 개입을 파악하고,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높여 죽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을 다룸으로써 죽음과 애도와 관련된 심리적 개입과 함께 공동체적 개입을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II. 죽음과 애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죽음과 관련된 문제는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간주된다. 오랜 역사 속에서 죽음은 철학, 종교뿐만 아니라 심리학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이는 죽음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현상임을 반영하며, 죽음이 인간과 떼어낼 수 없는 주제임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심리학 이론이 지닌 죽음에 대한 관점을 통찰하고 애도를 위한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학 이론에서 다루어진 죽음과 애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죽음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죽음은 철학적, 종교적 관점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접근을 통해 죽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한 생물·의학적 정의(biomedical definition)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 접근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신체적 기능이 정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권석만, 2020: 54). 인간의 몸은 살아있을 때 세포에 의한 화학적 변화를 통해 움직이는데 이러한 생물학적 과정이 중단되는 시점이 바로 죽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즉, 의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죽음은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모두 기능을 멈추는 상태를 의미하며, 죽음을 맞이하면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이부영, 1995). 생물·의학적 접근에서 죽음의 정의는 다른 접근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지만, 죽음의 개념은 법률, 문화, 철학, 종교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죽음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루어져 왔으며, 다음과 같이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된다.

먼저, 발달 이론적 관점에서의 죽음은 발달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를 거치며, 삶의 시점마다 다양한 발달 과업(developmental task)을 완수하며 성장해 나간다(이숙 외, 2011: 24-25). 발달 이론은 인간이 경험하는 생애 주기의 발달과 변화에 초점을 두며, 이러한 발달단계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간을 태어나서 끊임없는 변화를 겪으며 나아가는 존재로 보는 발달적 관점에서는 죽음 역시 인간이 경험하는 변화의 한 순간이자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발달적 관점에서 죽음은 인간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자 발달단계의 종결점으로 이해되며, 인간이 경험하는 중대한 변화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를 제시한 에릭슨(Erik Erikson)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죽음에 대한 정서를 탐구하기도 하였다. 에릭슨은 인간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건강한 자아 통합(ego integrity)을 이루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삶의 후회와 회한으로 괴로운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고 언급하였다(Erikson, 1963). 이는 발달단계에 따른 인생의 경험이 개개인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은숙, 2020: 20).

특히 인생의 발달단계 중 노년기는 배우자 혹은 친구들의 죽음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이때의 자아 통합 여부는 타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기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 통합이 잘 이루어질 경우, 개인은 자신의 지난 삶에 감사하고 수용하며,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보다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발달 이론은 발달적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발전시켜 왔으며, 건강한 죽음을 위해 생애 과정에서 자아 통합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여 죽음에 대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틀을 제공해 주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죽음에 대해 최초로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학자로 그는 인간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죽음에 대해 제시하였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통해 인간이 두 가지 본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두 가지 본능으로 생의 본능(eros)과 죽음의 본능(thanatos)을 제시하였다(Freud, 1920). 프로이트는 인간의 삶을 이 두 가지 본능의 투쟁 과정으로 보았으며, 죽음의 본능이 생존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생의 본능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Corey, 천성문 외 역, 2017: 71). 죽음의 본능은 인간의 공격적 욕구를 설명해 주며, 프로이트는 죽음의 본능으로 인해 인간이 자신이나 타인을 죽이거나 공격하고 싶은 무의식적 소망을 두고 때로는 이를 표출한다고 설명하였다(Freud, 1920). 프로이트에 의하면, 죽음의 본능은 인간의 일부로서 공격성의 표출과 같은 행동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생의 본능과 동일하게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정신분석학은 죽음의 본능을 기반으로 인간의 죽음을 설명하며, 이와 함께 죽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고찰하였다. 프로이트는 죽음에 대해 인간이 양가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는 인간이 자기 죽음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한편, 죽음을 삶에서 숨기고 제거하려는 경향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안석, 2011: 155-158). 죽음에 대한 인간의 양가적 태도는 인간이 죽음을 향해 지니는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다른 심리학자들과 달리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불안과 공포감의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하였고, 정신분석학은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탐구하였다(예현숙, 2017: 91).

프로이트가 죽음을 심리학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반면, 분석심리학자인 융(Carl Gustav Jung)은 죽음을 삶의 목적으로 제시하며 종교적 의미까지 확장하여 논의하였다. 융은 죽음을 통해 인간

이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종교는 인간이 사후의 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에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보았다(Jung, 한국용연연구원 C. G. 용저작번영위원회 역, 2004: 90-91). 용에 따르면, 죽음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인간은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삶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종교를 통해 사후의 목표까지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용은 죽음을 삶의 종말이 아닌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해석하였으며(Jung, 1963), 인생에서 죽는 시점을 삶의 최고점에 이르러 자기실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정신분석학에서의 죽음은 학자에 따라 본능과 양가감정, 자기실현의 과정 등으로 정리되며, 이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심리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존주의 역시 죽음을 핵심적인 주제로 삼았으며, 이 관점에서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궁극적 관심사 중 하나로 여겨진다. 실존주의는 죽음을 철학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각 개인의 삶에서 ‘나의 죽음’을 일차적인 철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죽음을 철학 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김대동, 2024: 21-22). 실존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각 개인이 죽음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와 죽음이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실존주의는 각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죽음을 탐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한 숙제로 간주한다.

실존주의적 견해를 지닌 모든 학자는 죽음이 인간의 본질이자 삶의 중심 요소라는 점에 동의하며 죽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해 왔다. 먼저 얄롬(Irvin D. Yalom)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이 경험하는 근본적인 갈등을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나 본질로 인한 갈등으로 보았으며, 그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자 실존적 역동의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죽음을 제시하였다(Yalom, 1980). 얄롬은 모든 인간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죽음이 삶과 상호존적이고 불안의 근원적 요소이자 정신병리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Yalom, 임경수 역, 2007: 45-46).

또 다른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Rollo May)도 죽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며 죽음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는 자기의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죽음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였다(May, 1961). 메이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때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실존주의 학자이자 의미치료를 창시한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은 죽음이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동시에 발견한 삶의 의미를 더욱 추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실존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프랭클은 죽음 없이는 결코 인간의 삶이 완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Frankl, 이시형

역, 2012: 122), 죽음의 부정적인 면보다 죽음이 지닌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였다. 프랭클은 자신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확고히 하였으며(Frankl, 2006), 그는 인간이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도 삶의 의미를 위해 노력할 수 있고, 다가올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를 향해 더욱 투쟁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프랭클의 죽음관은 인간이 자신의 삶이 유한함을 인식하여 매일 주어진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김대동, 2004: 68). 이와 같이 실존주의는 죽음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하며, 실존주의 학자들은 죽음을 단순히 종말로 보는 것을 넘어 인간의 목적과 가치, 의미를 고민하게 하는 도구로 여긴다.

앞서 언급했듯 죽음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해 왔으며, 죽음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의 순간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죽음학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죽음과 임종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죽음학으로 인해 인간의 죽음을 주요한 연구 주제로 삼고 학문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죽음학은 심리학과 독립된 학문 분야이지만, 죽음, 죽음의 과정, 그리고 애도와 같은 주제를 다루기에 심리학과 교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을 다룸에 있어 죽음학의 연구를 포함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죽음학은 파이펠(Herman Feifel)의 저서 『The Meaning of Death』로부터 출발하였으며(Feifel, 1965), 그는 이 책을 통해 죽음의 의미와 과정을 제시하여 죽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알리고 강조하였다. 파이펠이 죽음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한 학자라면,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은 죽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로 그는 적절한 죽음 교육이 정신과 육체의 발달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김대동, 2004: 70). 이 두 명의 죽음학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심리학자들이 죽음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죽음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퀴블러-로스(Elisabeth Kübler-Ross)는 죽음학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학자이자 죽음과 애도 과정의 심리적 과정을 밝힌 인물이다. 그가 출판한 『On Death and Dying』은 죽음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죽음학자였던 퀴블러-로스는 불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간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적 반응을 제시하였다. 퀴블러-로스는 죽음의 단계 이론을 통해 인간이 죽음과 마주할 때 부인(denial)과 고립(isolation), 분노(anger), 타협(bargaining), 우울(depression), 수용(acceptance)이라는 다섯 가지 감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Kübler Ross, 1969).

첫 번째 단계인 부인과 고립 단계에서 개인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하게 부정한다. 자기의 신체가 더는 회복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죽음을 부정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죽음에 대한 부인은 자신을 타인과 의료체계로부터 고립시키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인과 고립 단계는 지속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분노 단계에서는 개인이 죽음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을 쏟아낸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특정한 대상을 향하거나 불특정한 대상을 향하여 비난과 불만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죽음에 대해 분개하는 것으로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세 번째 단계인 타협 단계에서는 개인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점차 인정하면서도 계속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마음과 타협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타협의 대상으로 신을 찾게 되며, 종교적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조차 신을 향해 타협을 시도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우울이며, 타협의 단계를 지나 죽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단계에서 개인은 극심한 우울과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개인은 평온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수용의 단계는 죽음에 대한 감정을 극복한 결과이자 인생의 마지막 성장을 의미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이자 본질적 경험으로 여겨져 왔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 심리학적 관점마다 죽음을 정의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많은 심리학자는 죽음이 인간의 필연적 요소이자 주요한 주제라는 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놓으며 이를 강조하고 논의해 왔다. 다시 말해 죽음에 대해 심리학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점은 죽음이 현재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어진 주요한 과제라는 것이다(김은숙, 2020: 17-18). 앞서 살펴본 각 심리학적 관점은 죽음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건강하게 다루는 데 필요한 개입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 애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인간은 일생을 살면서 여러 번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은 죽는 존재이기에 타인 역시도 언젠가 죽게 되며, 모든 인간은 관계가 먼 타인부터 가까운 타인까지 여러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특히 가까운 타인의 죽음이 나의 죽음보다 빠를 때는 원하지 않더라도 사별(bereavement)로 인한 관계적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타인의 죽음은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실의 형태 중 하나이며, 관계적 상실에 포함되는 사별은 개인이 정서적으로 관계 맺은 대상과 교류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Mitchell & Anderson, 1983: 36-46). 사별로 인한 상

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며(Howarth, 2011: 4-10), 의미 있는 타인의 죽음은 다른 어떤 상실보다도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관계 대상의 죽음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슬픔을 포함한 다양한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게 된다. 가까운 타인이 죽게 되면, 개인은 정서적 반응인 슬픔/비에(grief)를 강렬하게 느끼고, 이외에도 신체적, 사회적, 영적 측면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Cole, 2011), 개인은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애도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시 말해 사별로 인한 고통스러운 마음은 애도 과정에서의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해소되고, 애도는 관계 대상의 상실로 인한 삶의 다양한 영역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이끈다. 애도는 소중한 타인을 상실한 후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하며(Moore & Fine, 이재훈 외 역, 2002: 269), 다양한 심리학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다루어져 왔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우울증과 함께 애도를 다루었으며, 우울증과 애도 반응에는 낙담하는 마음, 외부의 관계와 세계에 대한 무관심, 사랑하는 능력의 상실, 활동의 중지 등의 공통점이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Freud, 1917: 243-244). 프로이트는 애도와 우울증 증상이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며, 의미 있는 타인의 상실로 인한 애도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우울증의 여러 심리적 어려움이 포함된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 애도 과정을 겪는 많은 사람은 타인의 죽음 이후 극심한 우울감과 절망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동시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애도와 우울증의 공통점을 밝힌 프로이트의 주장은 애도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서적 어려움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애도에 대한 프로이트의 분석을 살펴보면, 프로이트가 타인의 상실과 애도를 다룰 때 리비도의 영향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사랑하는 대상이 죽게 되어 그 대상이 더는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투여했던 리비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하였다(Freud, 1917: 244-245). 프로이트는 인간이 중요한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 이후, 그 대상에 대한 리비도의 철회를 요구받게 되지만, 때로는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리비도의 철회 요구에 대한 거부감이 다양한 심리적 증상으로 발현되고, 이러한 증상을 체험하는 과정이 매우 큰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애도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애도의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의 리비도는 상실 대상에 대한 기억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랑하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반복적으로 인식하게 된다(Freud, 1917).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초기 단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과 관련된 장면이 지속적으로 떠오르면서 애도 대상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애도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

면, 상실을 경험한 개인은 조금씩 현실을 수용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과도하게 투입했던 리비도가 철수되는 동시에 자신에게 회귀하게 되어 자기애적 만족으로 이어지고, 애도 과정은 마무리된다(Freud, 1917). 이처럼 애도 대상에 대한 리비도를 철회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일반적으로는 리비도의 철회가 서서히 이루어지며, 어느 순간 자아는 리비도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아 애도를 마치게 된다(정경훈, 2021: 121).

다음으로는 애도를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다룬 존 볼비(John Bowlby)의 애도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볼비는 자신의 3부작 중 하나로 『상실(Loss)』을 출판하였으며, 이 책에서 타인의 죽음으로 인한 애도 과정을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볼비는 어른의 애도를 논의하기에 앞서 아이들이 애착 대상과 분리되는 경험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성인의 애도 반응에 관해서도 탐구하게 되었다. 볼비는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어린아이가 지속적인 분리로 인해 매우 해로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이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경험하며 보이는 반응을 애도의 차원에서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Gomez, 김창대 외 역, 2008: 257-259).

볼비가 제시한 분리로 인한 애도의 반응 중 첫 번째 반응은 ‘항거(protest)’이다. 주 양육자와 분리된 아동은 분리된 상황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럽게 울며, 분리된 대상을 찾으려 한다. 이 항거 반응은 보통 일주일 전후로 지속될 수 있다. 항거 반응이 종료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절망(despair)’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주 양육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희망을 잃게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진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적으로 진정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 이 시기의 아동은 깊은 절망감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를 거친 후에는 세 번째 단계인 ‘거리두기(detachment)’ 단계가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상실한 대상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상실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애착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 애도 과정이 마무리될 때는 새로운 애착이 형성되어 다시 외부를 향해 관심을 표출하게 되므로 이때는 외견상 진정한 회복이 확인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의 애도 반응을 최초로 연구한 볼비는 성인의 애도 과정에 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성인의 애도 과정이 아동의 초기 애도 반응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Gomez, 김창대 외 역, 2008: 260). 볼비는 사별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은 대상의 상실 이후 4단계의 애도 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볼비는 애도의 과정을 통해 대상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응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으며(Bowlby, 1980), 볼비가 제시한 성인 애도의 네 가지 단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무감각(numbness)’의 단계로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대상의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대상의 죽음에 대한 고통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갈망하고 수색하는(yearning and searching)’ 단계로 이 단계에서 애도를 겪는 사람은 상실한 대상을 그리워하고 찾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상실한 대상에 대한 강한 열망이 드러나고, 애도 대상을 실제 현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느끼기도 한다(조난숙·장동진, 2022: 7-8). 성인 애도의 두 번째 단계까지는 아동이 분리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인 항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인 ‘혼란과 절망감(disorganization and despair)’ 단계는 애도의 단계 중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지속적인 심리적 절망감과 혼란 상태를 겪는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애도를 거치는 개인에게 아직 새로운 애착 대상이 없고, 대상의 상실은 여전히 확연한 현실이기에 심리적 고통이 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재조직화(reorganization)’ 단계로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상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게 된다. 재조직화 단계에서는 사별의 경험이 새로운 내적 표상으로 반영되며, 개인은 사별 경험과 관련해서 자신과 상황을 모두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볼비는 최초로 아동이 경험하는 상실 이후의 애도 반응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밝혀냈으며, 이후 성인의 애도 과정도 심도 있게 제시하였다. 볼비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애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애착 대상의 죽음을 수용하고, 자기 삶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Bowlby, 1980). 그의 연구는 애도 과정이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 상실의 경험을 통합하고 새로운 애착을 형성하는 복잡한 심리적 과정임을 강조하였고, 실제로 애착 대상을 상실한 사람은 애도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볼비의 연구는 애도 과정이 개인의 심리적 회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애도가 상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의 상실 이후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애도의 개념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는 애도의 초기 시점에서 사별 대상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고통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경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사별을 겪은 개인은 애도의 시작 지점에서 극한의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며,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소중한 타인의 죽음이 심리적 외상(trauma)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외상은 내부 혹은 외부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정신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험으로 외상을 입은 사람은 그 결과로 무기력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된다(Tedeschi & Calhoun, 2004).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부정적 사건과 만나게 되며, 때로 어떤 사건들은 너무나 크고 강력하여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고 시간이 지나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의미 있는 타인과의 사별은 이러한 외상적 경험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의미 있는 타인의 죽음을 외상 사건으로 보게 되면, 사별 경험이 단순히 관계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과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서정, 2017:

568). 소중한 타인과의 사별은 외상 경험 중 하나로 개인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여러 선행연구는 타인의 죽음으로 인한 외상 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으며, 사별로 인한 상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백미화·신창호·예철해, 2023: 81).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은 타인의 상실 이후 애도 과정을 통해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도 하며, 일부 연구들은 의미 있는 타인의 사별 이후 애도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김두길·신재한, 2023 ; 박서정, 2017 ; 윤명숙·김남희·최혜정, 201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소중한 타인의 죽음이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임을 나타내며, 애도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지에 따라 사별이라는 외상 경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다루었듯 애도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각기 다른 단계와 명칭을 제시했지만, 공통적으로 애도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징과 심리적 과정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애도 과정은 일정한 순서와 변화에 따라 진행되며, 인간은 이를 통해 사별에 대한 감정적 충격과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애도를 다룬 학자들은 사별을 경험한 개인이 타인의 죽음으로 인한 정서적 변화를 겪지만, 애도 과정을 통해 고통스러운 마음과 삶의 변화를 수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애도 과정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실제로 인간의 삶에는 소중한 타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순간들이 녹아들어 있으며,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치는 것은 개인이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모두 애도 과정을 통해 사별 대상을 더욱 건강하게 기억하게 되며,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고, 건강한 애도 과정은 개인의 성장을 이루어 내기도 한다.

III.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삶에 모든 측면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죽음의 문제를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바라볼 때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다른 종교 및 심리학적 관점과 다르며, 이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은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의 기초가 된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종교에서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핀 후,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이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과 애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앞서 언급했듯이 죽음은 오래전부터 철학과 종교의 주된 관심 주제 중 하나였으며, 철학적 및 종교적 접근에서의 죽음은 각각의 관점마다 다르게 정의된다. 특히 유교에서의 죽음은 다른 철학적 및 종교적 전통과는 차별화된 관점을 지닌다. 유교는 인간의 죽음이나 사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 죽음을 맞이할 때 여한이 없도록 올바르게 사는 것을 강조한다. 유교는 현세에서 도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해하기에 유교에서의 죽음은 ‘죽음보다 더 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오지섭, 2008: 219-221). 이러한 관점을 살펴보면, 유교가 죽음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유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현세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유교의 상례와 제례에는 부모의 죽음 이후에도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조상숭배 사상이 내재해 있으며(유권중, 2004: 9), 이는 사후에도 영혼이 얼마간 존재한다고 믿는 내세관을 암시한다.

불교 역시 죽음을 삶과 함께 다루며, 생사(生死)라는 표현은 불교가 삶과 죽음을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곽만연, 2013: 141-142). 불교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생의 종말이 아니며, 생사의 순환 속에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불교는 삶 이후 죽음을 거쳐 다시 환생한다는 윤회(輪廻) 사상을 중심으로 지니고 있으며, 이 사상 속에서 죽음은 생명의 종료를 넘어 업(業)의 결과로 주어지는 윤회의 과정에 포함된다(임승택, 2005: 16). 물론 불교 안에서도 학파에 따라 윤회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교는 죽음을 업과 윤회의 한 단면으로 이해하며,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관문이라고 믿는다(임승택, 2005: 8). 즉, 불교에서 죽음은 삶이 종결되는 지점이 아닌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자 이전 생애에 대한 업의 결과로 이해된다.

도교의 죽음관은 도교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일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도교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죽음은 생리적인 죽음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죽음이 인간의 실존이 지닌 원초적인 곤경(predicament)이라는 것이다(최수빈, 2012: 242-243). 도교가 제시한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면, 도교에서는 죽음을 극복해야 할 실존적 문제로 보았다는 것과 무병장수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극복하여 신선이 되어 불로장생(不老長生)을 누리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안동준, 2016: 220-221). 이러한 도교의 죽음관은 도교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공하며, 실제로 가르치는 수련 내용과 방식의 기반이 된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의 죽음관은 각각 독특한 특성이

있는 동시에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이 세 종교는 모두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죽음을 단순한 생의 끝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또한, 조상 제사와 숭배를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고, 도덕적 삶을 통해 죽음 이후의 상태를 준비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앞서 다룬 세 가지 종교의 죽음관을 살펴보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관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세 가지 종교에서는 윤회 등의 개념으로 삶과 죽음, 영혼의 지속성을 주장하는 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믿는다. 더불어 기독교 세계관은 죄로부터 비롯된 죽음의 본질을 밝히며, 죽음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임을 밝힌다. 즉,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은 인간이 주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황명환, 2013: 374),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핵심 내용이며, 기독교 세계관은 죽음이 죄의 결과이자 영생의 과정임을 밝힌다.

(1)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다른 모든 관점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으로도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계는 불멸의 세계가 아니기에 인간 역시도 그 세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을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죽음이 인간에게 필연적인 요소가 되도록 한 계기가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타락 사건의 결과로 죽음이 인간에게 떨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고 밝힌다. 초기 구약성경에서는 죽음을 이해하는 데 신학적 사유가 덜 개입되었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경은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균진 외, 2018: 17-25).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은 단순히 생명에 대한 종결을 넘어 죄의 형벌이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 죽음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죽음의 기원이 인간의 죄악에 있음을 알 수 있다(전요섭, 2009: 47-49). 죄가 들어오기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세계에는 죽음과 고통이 없었으나,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불순종의 죄로 인해 모든 죽음이 시작되었고, 인간은 아담의 역사적 범죄 사건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죽음의 이해가 다른 접근과 근본적으로 지닌 차이는 죽음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죽음은 오랜 역사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졌

지만, 현대에 이르러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견해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은 분명하게 죄의 결과이자 처벌이며,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보는 영적인 관점을 통해 인간은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도와주며, 삶을 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 영생의 과정으로서의 죽음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죽음이 부활 사건을 통해 정복되었음을 보여준다. 신약 성경에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준다(류혜옥·정진희, 2004: 1-11). 물론 신약에서도 죽음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전요섭, 2009: 54).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동시에 부활 사건으로 죽음을 극복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된 죽음은 결국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며,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역사는 구원과 부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죽음과 부활은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으며, 실제 죽음은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해 인간의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한다(김균진 외, 2018: 37-41).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육체를 넘어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자 또 다른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죽음을 통해 인간의 삶이 윤희함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바라본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설명되며, 기독교 신념은 죽음의 문제를 구속사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적 관점과 차이를 보인다. 불교는 윤회의 관념을 통해 인간의 삶이 신의 섭리가 아닌 죽음을 관통하여 계속되는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지만(임승택, 2005: 8), 기독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유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 역시 기독교적 관점과는 차이를 지닌다. 유교는 죽음을 다름에 있어 오히려 현세의 삶에서 도리를 다하다가 죽음에 이르러 쉬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기독교는 삶이 끝난 이후의 또 다른 차원인 영생을 통해 죽음의 가치를 강조한다(오지섭, 2008: 222).

더불어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일반 심리학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공하지 못했음

을 드러낸다. 비록 심리학은 죽음으로 인한 근원적인 불안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잠재된 능력을 발현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한다는 것을 밝혔지만(유현숙, 2018: 361-371), 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기독교인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죽음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간은 죽음 역시 생명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확정되고 극복됨을 믿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하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애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개인이 지닌 죽음에 대한 인식은 자기의 죽음뿐 아니라 타인의 죽음과 관련된 사고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독교적 시각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의 죽음을 대처하는 과정인 애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다룬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시각에서 애도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1)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도

기독교 신념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깊게 구성하도록 우리를 이끌며, 이는 타인의 사별로 인한 상실에 대한 반응과 애도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육체적인 이별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이러한 신앙은 애도 과정에서 소망과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믿음은 타인의 죽음과 그로 인한 상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독교 신념은 애도 과정에서 소망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건강한 애도와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스도인의 애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애도와는 출발점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을 토로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애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애통'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극심한 슬픔을 나타낸다(장동진, 2018: 194). 예를 들어, 창세기 37장 34절에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 요셉의 죽음으로 인한 야곱의 애통함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하 1장 26절에는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의 애통함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상실에 대한 아픔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나누며,

이 과정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다. 노만 라이트(Norman Wright)는 개인이 상실을 겪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애도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고 설명하였다(Wright, 금병달·김정진 역, 2014). 기독교인은 타인의 죽음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며, 그들의 애도는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쏟아냄으로써 시작된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애도 과정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슬픔을 토로하는 시작 단계가 지나면, 믿음의 작용으로 인해 질문이 변화하게 되며,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박은정, 2020: 357-358).

성경 속 이야기들은 종종 신앙을 통해 애도가 심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윗의 애도 과정이 기록된 사무엘하 12장 15-23절에서는 신앙이 애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다윗이 반응은 그의 애도 과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윗은 밋세바와 낳은 아들의 죽음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깊은 슬픔과 애통을 느끼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는 애통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 나간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애도 과정이 하나님께 슬픔을 쏟아내는 과정을 거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드러낸다.

즉, 상실로 인해 애통해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위로를 얻고 치유될 수 있으며(김연수, 2021: 234), 애도 과정에서의 회복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은 상실의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깊이 있는 애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를 기초로 계속 이어지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도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작용으로 소중한 타인과의 이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개인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종합하면, 기독교인의 애도는 전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도 과정을 통해 삶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애도 경험을 거친 후 외상 후 성장이 나타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윤명숙·김남희, 2013), 이러한 삶의 의미는 기독교의 신앙 체계를 통해 더욱 깊이 발견될 수 있다. 기독교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며(김수지, 2023: 47),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본질적인 가치에 근거한 삶의 방향성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애도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확장하여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도는 소중한 타인을 떠나보내는 고통의 시간조차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다.

(2)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애도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애도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일반 심리학이 제시하는 애도와 차이를 보이지만,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심리학과 유사성을 지닌다. 일반 심리학에서도 건강한 애도를 위한 공동체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으며(이신형, 2022: 319), 타인의 지지와 사회적 연결은 애도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된다. 사별로 인한 대상의 상실 이후 시작되는 애도 과정은 남아있는 타인과 함께 이루어지며, 애도를 겪는 개인은 상실된 대상의 자리를 치명하는 또 다른 타인을 허용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한영희, 2020: 306). 이러한 점에서 심리학이 주장하는 애도에서도 타인과의 연대감은 필수적이며, 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애도와 유사한 논점을 제시한다.

일반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애도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애도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거치는 동시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이 과정을 함께 나누게 된다. 애도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는 여러 관계적 안전기지(secure base) 중 하나이며, 신앙 공동체는 회복의 과정을 함께 버티고 지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는 애도를 거치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제공하여 대상의 상실을 보다 안정감 있게 받아들일도록 돕고, 상실 대상이 없는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박은정, 2020: 359). 특히 애도와 관련된 신앙 공동체의 역할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서 가족 중심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기반을 고려할 때, 필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소중한 타인의 죽음으로 애통해하는 인물과 함께 슬퍼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에 성경적 관점에서 애도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는 성경 말씀은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를 보여주며, 서로를 위해 지녀야 할 위로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교회는 상실로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애도자와 함께 울고 공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힘써야 한다. 즉, 신앙 공동체는 구성원의 애도 과정에 동참하고, 상실을 겪은 기독교인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더욱 깊어지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한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죽음은 공동체적 사건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누군가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들의 애도 과정 역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공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곽혜원, 2015: 176). 주목할 점은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애도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양한 신앙 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 말씀, 기도, 예배, 소그룹 모임 등의 신앙 자원은 기독교인의 애도 과정을 지원하고, 소망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 빠

진 개인에게 다양한 신앙 자원은 물론 그 자체로 유익하지만,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리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애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진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애도는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며, 이 과정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함으로써 상실과 슬픔을 극복하는 경험을 형성한다. 신앙 공동체에 속한 개인과 연결된 사람의 죽음은 그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닌 공동체적 사건이기에 신앙 공동체는 개인의 애도 과정에 함께해야 한다. 신앙 공동체의 지지와 신앙 자원은 개인이 애도 과정을 거쳐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독교인은 상실로 인해 겪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연결성을 유지하고 확장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다.

IV.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앞서 다루었던 애도 과정은 상실로 인한 심리적 변화 과정인 동시에 상실을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포함된 복합적인 과정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진 애도 과정은 안정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마지막 장에서는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 죽음 및 애도와 관련된 주제를 어떻게 적절히 다루어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정리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과 애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죽음과 애도 문제와 관련된 개입을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1. 죽음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먼저 본 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접근은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개입 방향을 의미하며, 이후 장에서 논의할 애도에 대한 개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첫째, 기독교 상담사는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상담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기독교 상담사는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죽음과 관련된 사례를 다룰 때, 죽음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분명한 관점을 기반으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적으로 죽음은 죄의 결과이자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였다(유현숙, 2018: 376). 이러한 기독교적 죽음 이해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회피의 욕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기독교 상담사는 내담자보다 우선하여 죽음의 문제에 대한 내적인 정리를 완결해야 하며, 담대

함을 바탕으로 내담자가 지닌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는 현세적인 삶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걱정과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곽혜원: 2015, 61). 이러한 현대 사회의 경향이 지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죽음을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기독교 상담사는 성경적 관점에 근거하여 죽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죽음에 대한 건강한 접근과 준비를 장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 상담학에 기반을 둔 죽음 교육(death education)으로서 발달단계를 고려한 성경적 웰다잉 교육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죽음에 대한 예방적 개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기독교 상담은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 상담은 개별적인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한 개입에도 힘써야 하지만, 동시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접근에도 힘써야 할 사명이 있다.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도 내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과 다양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죽음에 대한 성경적 웰다잉 교육은 일반 심리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다룰 수 없는 ‘좋은 죽음’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죽음 이후 영생의 개념을 제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차원까지 아우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해석되지 않기에 성경적 관점을 기초로 한 웰다잉 교육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으며,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학에 기초한 죽음 교육을 통해 좋은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죽음에 대해 질문하고, 죽음을 다루며, 죽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연결된다(김홍연, 2007: 328). 성경적 웰다잉 교육은 죽음과 삶의 문제를 풍성하게 다루고, 이를 통해 잘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사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끌어낼 수 있다.

셋째, 죽음과 관련하여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죽음을 앞둔 환우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죽음 교육 및 심리·사회적 개입을 시행하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이 다양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왔으며(남은영·장연집, 1999 ; 손민서·윤지아, 2022 ; 송양민·유경, 2011), 그중에서도 죽음을 앞둔 노인과 암 환자에게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죽음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도 일반 심리학

적 관점에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이 비교적 활발하게 개발되고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기독교적 관점에 기초한 죽음 교육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중 하나로 죽음을 앞둔 환우나 노인에게 대한 죽음 교육 및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죽음을 앞둔 대상에게 실시하는 죽음 교육 및 개입 역시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개발될 때, 죽음을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의 문제가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죽음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이원일, 2010: 361). 이를 위해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 함께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 이해하도록 이끄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죽음을 앞둔 환우와 노인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심리적 안정과 영적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강화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며,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가족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기독교 상담사는 이에 대해 활발한 개입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며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한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가족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죽음은 개인적인 사건만은 아니므로 죽음을 앞둔 사람의 가족 역시 죽음의 과정에 포함해야 하며, 가족 중 임종을 향해 나아가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남은 가족의 정상적 기능은 위협을 받고 취약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박창승·김순자, 1996: 153).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는 경험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으며, 슬픔과 상실감, 우울증,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죽음을 앞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면, 가족의 죽음을 앞둔 기독교인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신앙을 기초로 가족의 죽음을 건강하게 수용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상담사는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죽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상담 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과 타인의 죽음에 대한 갈등과 아픔을 온전히 표현할 뿐 아니라 상담을 통해 죽음이라는 주제를 고찰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더욱 깊은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죽음 교육과 개입 방안이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죽음 교육은 모든 발달단계에서 유익하기에 예방적 차원에서 성경적 웰다잉 교육이 필요하며,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치료적 개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앞서 다룬 죽음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에 이어 본 장에서는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애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상담사는 애도가 필요한 내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가장 안전한 관계 대상이자 안전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의미 있는 타인을 죽음으로 상실한 경우, 개인은 혼자의 힘으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담사는 내담자의 고통을 안정되게 반영해 주고 버텨줄 수 있는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조난숙·장동진, 2022: 21-22). 기독교 상담사가 내담자의 고통을 견뎌 주고 단단하게 받아줄 수 있는 안전기지가 될 때, 내담자는 애도 과정을 보다 안정되게 거쳐 일상의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애도 과정을 거치는 내담자는 기독교 상담사가 제공하는 안정감을 통해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기독교 상담사는 애도 과정을 거치는 내담자가 개인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상실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는 관계성과 연결성을 추구하는 종교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애도 상담의 주요 목표 역시 필연적으로 관계의 회복을 포함한다. 사별을 겪은 내담자는 건강하고 충분한 애도 과정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김동영, 2015: 141). 이를 위해 기독교 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상실된 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내담자가 관계를 회복하고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과 원칙을 함께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때로 애도의 문제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내담자는 애도 대상에게 다양한 부정적 정서와 양가감정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담자는 다양한 이유로 애도 대상에게 양가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처의 기억을 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공병혜, 2020: 33). 기독교적 관점에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독교 상담사는 이러한 기독교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용서와 이해, 소통의 과정을 내담자와 함께 탐구하고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셋째, 기독교 상담사는 개인의 애도 과정에 있어 신앙 공동체와 신앙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내담자의 회복과 성숙을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모임과 활동, 그리고 기도 생활과 성경 공부 등 다양한 신앙 자원은 애도 과정을 거치는 내담자에게 기독교적인 회복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기독교 상담사는 내담자의 신앙 공동체와 신앙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죽음과 애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깊은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 애도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접근 중 하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충분히 비탄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죽음의 그림자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며(이원일, 2010: 367), 기독교 상담사는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며 지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경험한 유가족은 부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에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된다(전요섭, 2000: 317-318). 따라서 기독교 상담사는 다양한 개입과 지원을 통해 가족을 죽음으로 상실한 내담자를 돕는 데 힘써야 한다. 기독교 상담사는 죽음으로 인한 상실 반응과 애도 과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유가족은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적 개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안전기지가 구축된 환경에서 위로받고 안정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상담과 다양한 개입은 유가족에게 영적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기에 상실의 고통을 견디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앞서 다루었던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애도는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와 함께할 때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개입은 유가족의 건강한 애도 과정을 촉진하고 상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상담학적 개입은 상실로 인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은 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치유 과정을 돕고, 유가족이 상실의 충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다룬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에 대해 요약하면, 기독교 상담사는 내담자가 자신의 상실과 애도 과정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독교 상담사는 내담자의 애도 과정을 함께하는 안전한 관계 대상이 되어야 하며, 애도 과정을 거치는 내담자는 기독교 상담사를 통해 상실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더불어 애도와 관련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중 하나로 가족의 죽음으로 상실을 겪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 다양한 개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교육과 프로그램 및 다양한 치료적 개입 방안과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V. 나가는 말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주제 중 하나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죽음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기에 철학과 종교,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다른 모든 주제가 그러하듯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다루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더불어 타인의 죽음으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이자 과정인 애도 역시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더욱 깊은 회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죽음과 애도 과정이 가지는 의미와 그에 따른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독교는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긴 승리를 선포한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평안을 찾도록 돕는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은 애도 과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애도 과정을 살펴보면, 애도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며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른 심리적 어려움과 같이 타인의 죽음으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소망 속에서 치유되고 일상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독교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기독교인들은 서로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로 지지하며,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은 내담자가 죽음과 애도 과정을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죽음과 애도에 대해 기독교적 상담학적으로 접근할 때, 내담자는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느끼도록 하며,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인 죽음의 속성을 삶에서 체감하도록 돕는다. 결론적으

로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은 신앙과 연계하여 건강하게 애도 과정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접근은 내담자가 상실과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죽음과 애도의 문제를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죽음과 애도를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과 애도의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을 제안함으로써 신앙과 영적 차원을 고려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상담과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죽음과 애도의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 상담사가 더욱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죽음과 애도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담과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서의 제한점을 가지며, 실제 사례 연구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독교 상담이 죽음과 애도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실제적인 개입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과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죽음과 애도의 문제를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다루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상담 현장에서 죽음과 관련된 문제로 아파하는 내담자를 만나는 기독교 상담사들이 더욱 전문성 있는 개입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선보 (2003). 실존주의 철학에서 본 죽음과 교육. **教育問題研究**, 19, 1-23.
- 공병혜 (2020). 죽음에 대한 애도와 용서. **大同哲學**, 92, 23-45.
- 곽만연 (2013). 초기불교의 올바른 삶과 죽음관. **동아시아불교문화**, 13, 139-169.
- 곽혜원 (2015).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서울: 새물결플러스.
- 권석만 (2020). **죽음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금병달·김정진 역 (2014). **마음껏 슬퍼하라**. Wright, H. N. (1974). *Experiencing grief*. 서울: 노란숲.
- 김균진·김선영·김영선·노우재·안계정·이신건·이오갑·정지련·조현진·황현숙 (2018). **기독교 신학의 죽음 이해**. 서울: 신앙과 지성사.
- 김난예 (2004). 죽음 준비교육을 위한 죽음에 대한 태도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10, 1-13.
- 김대동 (2004).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동영 (2015). 상실과 애도 그리고 돌봄에 대한 이해. **신학논단**, 79, 125-159.
- 김두길·신재한 (2023). 사별 후 애도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유대감과 마음챙김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심리교육복지**, 10(2), 81-95.
- 김수지 (2023).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PERMAS 모델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8(4), 29-60.
- 김애순 (2004).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연수 (2021). 사별과 애도, 그리고 회복지원을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방안 연구. **신앙과 학문**, 26(4), 225-250.
- 김은숙 (2020). **의미치료에 기반한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김창대·김진숙·이지연·유성경 역 (2008). **대상관계이론 입문**. Gomez, L. (1997). *An Introduction to Object Relations*. 서울: 학지사.
- 김홍연 (2007). 죽음과 기독교교육: 죽음을 통한 삶의 의미를 교육하기. **신학과 목회**, 28, 305-331.
- 남은영·장연집 (1999). 아동의 죽음불안 감소를 위한 죽음대비교육의 효과. **아동학회지**, 20(3), 217-230.
- 류삼준 (2021). '생명 위기'의 시대, 기독교의 안식, 그리고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7, 339-375.
- 류혜옥·정진희 (2004). 죽음의 의미와 기독교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7, 1-11.
- 문형준 (2015). 재난 시대의 정동: 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여성문학연구**, 35, 41-67.
- 박민지 (2021). **상담자의 청소년 내담자 죽음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서정 (2017). 애도경험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 22(4), 565-583.
- 박은정 (2020). 일상의 상실을 애도하기 위한 목회상담연구: 존 보울비(John Bowlby)의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1, 341-368.
- 박창승·김순자 (1996). 암환자 가족의 죽음 태도 유형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3(2), 153-169.
- 백미화·신창호·예철해 (2023). 한국 전통 상·장례(喪·葬禮) 문화에 나타난 죽음관이 상실대처에 미치는 영향: 데리다(Derrida)의 애도이론과 관련하여. **宗教教育學研究**, 73, 79-94.
- 손민서·윤지아 (2022). 웰다잉(well-dying) 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죽음과 웰다잉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4(6), 2379-2391.
- 송양민·유경 (2011).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불안과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54, 111-134.
- 안동준 (2016). 한국 도교의 죽음의식. **泐上古典研究**, 54, 219-250.
- 안석 (2011). 죽음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과 기독교 상담적 활용: 노년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21, 151-188.
- 예현숙 (2017). **영적의미 추구로서의 사별애도 연구: C. G. 융의 개성화 이론과 P. 투르니에의 전인격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오지섭 (2008). 현대 한국인을 위한 유교의 죽음 이해. **한국학연구**, 29, 203-228.
- 유권중 (2004). 유교의 상례와 죽음의 의미. **철학탐구**, 16, 5-32.
- 유현숙 (2018). 죽음의 이해를 통한 심리학과 목회상담과의 협력관계: 심리학의 자아실현과 신학의 종말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1, 357-383.
- 윤명숙·김남희 (2013). 부모상실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 -사별, 이혼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1(2), 177-201.
- 윤명숙·김남희·최혜정 (2013). 부모와 사별한 대학생의 애도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9, 83-111.
- 이동훈·이수연·윤기원·김시현·최수정 (2017). 성별에 따른 외상사건 경험이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반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227-253.
- 이부영 (1995). **의학개론(2): 인간과 의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숙·문혁준·강희경·공인숙·김정희·심희옥·안선희·안효진·이미정·이희경·천희영·한미현 (2011).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창지사.
- 이시형 역 (2012).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Frankl, V. E. (2006). *Man's Search for Meaning*. 서울: 청아출판사.
- 이신형 (2022). 추모(추도)예식의 애도상담적 접근. **선교와 신학**, 56, 313-343.
- 이원일 (2010). 죽음에 대한 노년기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정보**, 26, 353-378.

- 이재훈·문미희·신은향·권혜경·우재현 역 (2002). **정신분석 용어사전**. Moore, B. E. & Fine, B. D. (1994).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s*.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임경수 역 (2007). **실존주의 심리치료**. Yalom, I. D. (1980). *Existential Psychotherapy*. 서울: 학지사.
- 임승택 (2005).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고찰: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43, 7-22.
- 장경철·강진구 (2014). **죽음과 종교**. 서울: 두란노.
- 장동진 (2018). 기독교상담에서 죄의 문제 다루기: 애도(mourning)를 통한 이해. **복음과 상담**, 26(2), 185-219.
- 전병술 (2015). 한국에서의 죽음학. **동양철학**, 44, 55-73.
- 전병식 (2022). 장례의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죽음이해: 바람직한 애도와 위로의 실천을 위해. **대학과 선교**, 53, 141-185.
- 전요섭 (2000). 상실 가족의 심리이해와 목회상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7, 313-341.
- 전요섭 (2009). 효과적 죽음상담을 위한 죽음 이해. **복음과 상담**, 12, 43-68.
- 정경훈 (2021). 애도, 우울증, 상실을 다시 생각하다: 프로이트, 라캉, 클라인, 신경과학의 통합적 접근을 향하여. **현대정신분석**, 23(2), 111-150.
- 조난숙·장동진 (2022). 애착이론과 자기심리학을 통한 애도의 이해와 기독교상담적 적용. **정신분석심리상담**, 7, 1-32.
- 천성문·권선중·김인규·김장희·김창대·신성만·이동훈·허재홍 역 (2017).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Corey, G. (2016).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th Ed*. 서울: 센케이저러닝코리아.
- 최병찬 (2019). **사별자 치유를 위한 목회 신학적 연구: 애도 상담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최수빈 (2012). 도교의 생사관(生死觀): 전진교(全眞敎) 문헌을 중심으로. **道敎文化研究**, 37, 239-284.
- 통계청 (2024). 2023년 **출생 사망통계**. 통계청.
- 한국용연구원 C. G. 용저작번역위원회 역 (2004). **인간과 문화**. Jung, C. G. (1985). *Mensch und Kultur*. 서울: 솔.
- 한영희 (2020). 새로운 존재로의 여정: 발달적 애도. **목회와 상담**, 35, 288-334.
- 황명환 (2013). **죽음, 새로운 삶의 시작**. 서울: 섬.
- Becker, E. (1973).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Free Pres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London: Hogarth Press and Institute of Psycho-Analysis.
- Cole, A. H. (2011). *Good mourning: Getting through your grief*.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Corr, C. A., Nabe, C. M. & Corr, D. M. (2009). *Death and dying, life and living* (6th ed.). Belmont: Wadsworth Cengage Learning.
- DeSpelder, L. A. & Strickland, A. L. (2015). *The last dance: Encountering death and dying* (10th ed.). New York: McGraw-Hill Education.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eifel, H. (1965). *The meaning of death*.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Frankl, V. E. (2006). *Man's search for meaning*. Beacon: Beacon Press.
- Freud, S. (1917).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4.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1920).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Liveright Publishing Corporation.
- Howarth, R. A. (2011). Concepts and controversies in grief and los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3(1), 4-10.
- Jung, C. G. (1963). *Memories, Dreams, Reflections*. Trans. Richard & Clara Winston. New York: Pantheon Books.
- Kübler-Ross, E. (1969). *On death and dying*. New York: Macmillan.
- May, R. (1961). *Existential psychology*. New York: Random House.
- Mitchell, K. R. & Anderson, H. (1983).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Yalom, I. D. (1980). *Existential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및 접근

The Consideration and Approach of Christian Counseling regarding Death and Mourning

김수지 (고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죽음과 애도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 죽음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심리학 역시 죽음과 애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심리학적 관점만으로는 인간의 전인적 차원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과 애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죽음은 죄의 결과인 동시에 영생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죽음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이자,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의 과정이라는 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애도 역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혼자 경험하는 과정이 아니며,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신앙 공동체와의 연결 속에서 애도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애도가 참된 회복과 성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죽음과 애도의 문제를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독교 상담사가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애도가 필요한 내담자에게 안전기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상담사는 내담자의 일상 회복과 상실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앙 공동체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기독교 상담학에 기반을 둔 죽음 교육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주제어: 죽음, 애도, 기독교 상담